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트럼프, 파월 의장을 "실패자"라 부르며 금리 인하 재차 요구
- CNBC: 트럼프 경제 분야 지지율, 전체 재임 기간 중 최저치

[미국 금융]

- CNBC: 미국 리스크로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 미 부유층 늘어
- Bloomberg: 무역전쟁에 금값은 최고치, 달러는 하락

[미 관세 여파]

- Bloomberg: 한국 수출 둔화, 관세에 대한 글로벌 경고 신호 보내
- Bloomberg: 한국 대표단, 미 행정부와 이번 주 관세 협상
- WSJ: 관세 상황에서 나이키 신발 제작 자동화 쉽지 않아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달러 약세와 금값 급등으로 럭셔리 브랜드에도 부담
- WSJ: 아마존, 우려와 달리 무역전쟁에 잘 대비
- Bloomberg: 에어비앤비, 숙박 총액 표시 의무화
- Bloomberg: 테슬라, 저가형 모델 출시 연기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Trump again asks Fed's Powell to lower rates, calling him a 'major loser'

트럼프, 파월 의장을 "실패자"라 부르며 금리 인하 재차 요구

- 트럼프는 오늘 월요일 오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다.
- 그는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. 그는 파월 의장을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"실패자"라 불렀다.
- 트럼프는 유럽이 이미 7차례 금리를 인하했다면서, 파월 의장이 너무 늦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.
- 그는 또한 인플레이 우려를 일축하면서 현재 에너지 가격과 식품비가 인하되고 있어 실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.

CNBC: Trump's approval rating on the economy drops to lowest of his presidential career, CNBC Survey finds

트럼프 경제 분야 지지율, 전체 재임 기간 중 최저치

- 트럼프의 관세, 인플레이, 정부 지출 처리 관련한 광범위한 불만족으로 그의 경제 정책 지지율이 1기 행정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임 기간 중에 최저치로 떨어졌다.
- 응답자 1천 명 중에 업무 처리에 44%가 지지, 51%는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지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 2020년 퇴임 때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43%가 지지하고 55%는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CNBC 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More rich Americans are opening Swiss bank accounts fearing U.S. risks

미국 리스크로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 미 부유층 늘어

- 스위스 은행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부유층 미국인들이 계좌 개설에 관심이 증가했으며 실제 이를 통해 은행들의 비즈니스 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.
- 현재 스위스는 중립적인 정치 상황, 강한 통화, 안정된 경제. 신뢰가 가는 법적 시스템으로 투자에 각광을 받고 있다.
- 수십 년 전만 해도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은 탈세 의혹과 연관된 이미지가 있었으나, 오늘날 와서는 규제도 엄격하며 널리 사용되고 세금 보고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.

CNBC 기사

Bloomberg: Gold Hits Record as Dollar Sags and Trade War Concerns Persist

무역전쟁에 금값은 최고치, 달러는 하락

- 달러가 지난 2023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은 온스당 3천 4백 불을 상회하고 있다.
- 트럼프는 금리 하락을 강조하면서 연준 파월 의장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. 시키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연준의 독립적인 활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.
- 일부 전문가들은 파월 해임은 중앙은행 독립성의 원칙을 해치며 미국 금융 정책을 정치화할 위협이 이어 시장에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. 즉,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동반해 떨어지고 금 등 안전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[미 관세 여파]

Bloomberg: Shrinking Korea Exports Send Global Warning on Trump Tariffs

한국 수출 둔화, 관세에 대한 글로벌 경고 신호 보내

-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핵심 국가 중에 하나로 글로벌 교역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국가다. 한국의 4월 무역 데이터 예비치를 보면 해외 선적 규모가 작년 동월에 비해 5.2% 감소했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도 14.3%, 3.4% 각각 줄었다.
-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4월 초중반의 경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.5% 줄었고 반도체는 10.7% 그리고 철강 수출은 8.7% 감소했다.

Bloomberg: US, South Korea Set for Trade Negotiation as Tariffs Hit Economy

한국 대표단, 미 행정부와 이번 주 관세 협상

-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수출이 줄고 있는 한국의 대표단들은 이번 주 미국의 행정부 관련 부처 수장들을 만나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.
- 미국의 연방 재무장관과 USTR은 한국의 재경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을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워싱턴 DC에서 만나게 된다.
- “한국 정부는 조용하고 진지한 협상을 통해 양국이 윈윈 해결책을 서로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밝혔다.

WSJ: Why It's So Difficult for Robots to Make Your Nike Sneakers
관세 상황에서 나이키 신발 제작 자동화 쉽지 않아

- 트럼프는 비용이 낮은 아시아 국가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기업들이 제조 시설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.
- 그러나 미국의 높은 노동 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력 대신 자동화로 이를 대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. 그러나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이런 자동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.
- 예컨대 나이키 신발의 경우 로봇은 신발 제작에 필요한 부드러운 폼을 부풀어 오르고 늘어나는 부품의 제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. 신발은 온도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수축되는데 이를 자동화가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.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A Weak Dollar and Record Gold Price Are More Bad News for Luxury Stocks

달러 약세와 금값 급등으로 럭셔리 브랜드에도 부담

- 달러와 위안화가 유로 대비 각각 약 5% 하락하고 금값이 온스당 지난주에 3,300달러를 이미 돌파하면서, 유럽 럭셔리 브랜드들은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 압박에 직면했다.
- 이들 브랜드는 제조비용은 유로로 부담하고, 매출은 달러와 위안화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화 약세는 이들에게 불리하다.
- 또한 금값 급등은 명품 시계 및 보석 제조업체들의 원가 상승을 초래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.
- 유럽 명품 브랜드들은 달러 약세와 잇따른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. 에르메스는 5월 1일부터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며, 샤넬과 디올 같은 상위 브랜드는 영향이 적겠지만, 구찌 등 중위권 브랜드는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.

WSJ: Amazon Is Better Prepared for the Trade War Than Investors Think

아마존, 우려와 달리 무역전쟁에 잘 대비

- 아마존은 글로벌 물류망과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타국으로 생산·재고 이동이 가능하며, 중국산 제품 주문을 일부 취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. 대규모 구매력으로 공급업체에 가격 압력을 가할 수 있어 경쟁사 대비 가격 상승을 억제할 여력도 있다.
- 그러나 아마존 전체 판매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3자 판매자들은 대부분 중국 제조에 의존하고 있어, 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다.
-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AWS, 디지털 광고,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개인 생활용품 부문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 경기 둔화에도 타격이 덜한 사업 포트폴리오 덕분에 다른 기업들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.

Bloomberg: Airbnb to Show Fees in Price Display to Comply With FTC Rule

에어비앤비, 숙박 총액 표시 의무화

- 에어비앤비는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(FTC) 규정에 따라, 청소비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숙박 총액을 검색 결과에서 기본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.
- FTC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통과된 규정에 따라, 공연 티켓·단기 숙박업체 등이 필수 수수료를 포함한 총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.
- 에어비앤비는 2023년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총액 표시 전환 버튼을 도입했으며, 이후 30만 개 가까운 숙소에서 청소비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Tesla to Delay Production of Cheaper EVs, Reuters Reports **테슬라, 저가형 모델 출시 연기**

-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Y 생산을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.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.
-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, 시장 점유율도 2022년 75%에서 2024년 50% 미만으로 하락했다.
- 이번 화요일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는 저가형 모델 전략과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논란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금값 3,400달러 첫 돌파...골드만삭스 "내년 4,000달러 가능성" **트럼프의 '파월 사임' 압박도 영향 미친 듯** **엔/달러 환율은 140엔대...작년 9월 이후 최저** **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·독일 국채 가격도 강세**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21일(현지시간)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새로 썼다.

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이날 한국시간 오후 3시 45분 기준 전장 대비 2.27% 오른 온스당 3,404달러를 기록, 사상 처음으로 3,400달러선을 넘어섰다.

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3,393.3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, 한국시간 오후 3시 58분 기준 전장 대비 1.96% 오른 3,391.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